

#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Amenity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Culture and Arts Space

**Author** 남승희 Nam, Seung-Hee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황유림 Hwang, You-Lim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황연숙 Hwang, Yeon-Sook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Abstract** Recently, Korea's decaying urban spaces are being regenerated as spaces for the creation and production of culture and arts with amenities i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utilizing idle spaces among urban regeneration spaces in Seoul from an amenity perspective and suggest ways to revitalize the sustainability and design of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By construc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urban regeneration culture and arts spaces from an amenity perspective,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on seven spaces that were reopened as urban regeneration spaces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rban regeneration culture and arts space consists of exhibition, creation, education, relaxation, sales, and community spaces. Second, from an amenity perspective, urban regeneration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can be divided into environmental, aesthetic, convenien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 Environmental provides comfort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creating a nature-friendly environment, and minimizes environmental impact by preserving existing spaces. Aesthetics provide a pleasant environment where natural scenery and public sculpture can be enjoyed in harmony. Convenience is easy and convenient for users to access through public transportation diversity and quick information acquisition. Thir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culture and arts spaces from an amenity perspective, aesthetics was most evident and environmental was the least satisfactory. In order to improve amenities, an environment that provides not only comfort but also a variety of uses to citizens and artists is needed by creating a community and relaxation space that emphasizes eco-friendly landscaping. In the future, research on sustainable design that takes many citizens and artists into consideration is needed to ensur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Keywords** 어메니티 특성,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Amenity characteristics, Urban Regeneration,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산업기술의 발전과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예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유휴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sup>1)</sup> 노후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들

이 극장, 교육센터, 체험공간과 같은 문화예술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 내 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영국과 같은 OECD 국가들은 양적인 도시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환경 보전을 추구함에 따라 도시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어메니티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메니티를 통해 공원, 문화시설, 갤러리, 상점에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한다. 현대 도시에서 어메니티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한다.<sup>2)</sup> 예술가들에게 창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sh@hanyang.ac.kr

1) 정지은 (2021). 문화적 도시재생으로서 문화예술공간 운영 활성화 연구 : 인천아트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1(3), 161-169.

2) 이유나 & 윤갑근. (2020).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어메니티 향상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21(1), 419-430.

작 및 제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여한다. 이처럼 문화예술공간에 어메니티를 활용한다면 지역 커뮤니티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재생 공간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어메니티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디자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컬처노믹스 정책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간을 선정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광역 문화재단 중 문화예술 공간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된 총 16개의 문화예술 공간 중 도시재생 공간으로 재개관한 공간 7곳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의 개념과 공간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어메니티 관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셋째,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사례 7곳 선정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을 사례 분석하였다. 넷째,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의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개념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며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sup> 그 중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을 갖추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성화하여 도시에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직·간접적으로 접함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sup>4)</sup>

3) 김미영 & 문정민. (2010). 도시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분석.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6, 161-168.

따라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사회문화와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2.2. 어메니티의 개념과 특성

#### (1) 어메니티의 개념

어메니티(amenity)라는 용어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주거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도시 계획의 맥락에서 처음 사용되었다.<sup>5)</sup> 당시 도시는 산업 도시로 전환되며 환경의 악화, 공중위생 문제, 보건 문제 등이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도시 계획가들은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 도시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메니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어메니티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편안한 환경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편리함’과 ‘쾌적함’의 차원이 더욱 세분화되고 진화됨에 따라 생활환경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환경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sup>6)</sup>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재정리한 어메니티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 (2) 어메니티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어메니티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Riss, Auric 사이트를 활용하여 어메니티 관점으로 공공공간,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최근 10년 이내의 선행연구 Kim & Hwang(2023), Lee & Yoon(2020), Kim, Kweon, & Kim(2018), Kim & Kim(2015), Kang & Hwang(2015), Kim & Kim(2014), Kwon & Choi(2013)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표 1>과 같이 과반수로 언급된 상위 항목에 해당하는 ‘환경성, 심미성, 편리성, 문화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 1> 어메니티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도)	환경성	편리성	경제성	공공성	문화성	심미성	정체성	사회성	지역성	참여성	위생보건성	경관성	역사성
Kim & Hwang (2023)	■	■			■					■			
Lee & Yoon (2020)		■		■	■	■					■		
Kim, Kweon, & Kim (2018)			■		■	■		■	■				
Kang & Hwang (2015)	■	■			■			■			■		■
Kim & Kim (2015)		■				■						■	
Kim & Kim (2014)	■	■				■	■						
Kwon & Choi (2013)	■	■			■	■							
합계	4	5	1	1	4	5	2	2	1	1	2	1	1

4) 노이경, 심현근, 김현정 & 황연숙. (2016).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디자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2호), 160-163.

5) 김유진 & 황연숙. (2023). 도시 어메니티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 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1), 84-87.

6) 김상효, 권영재 & 김주연. (2018). 문화예술어메니티 관점에서 본 서울지하철 역사 내부 공간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06), 53-65.

### 2.3.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메니티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어메니티 특성을 ‘환경성, 심미성, 편리성, 문화성’으로 도출하였고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에 관한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 (1) 환경성

기존의 공간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는 재생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Kim, Kweon, & Kim, 2018). 또한,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휴식을 제공하고 외부환경을 활용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공간과 자연환경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Kang & Hwang, 2015). 이를 통해 Kim & Kim(2014)은 자연을 포함하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성은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기초한 재생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2) 심미성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내·외부 환경의 구성에 있어 미적 감각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Kang & Hwang(2015)은 공간의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친근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공간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Kwon & Choi(2013)은 기존 공간의 구조가 새로운 용도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에 맞게 내·외부의 공간 또한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통일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조형물과 같이 문화예술과 연관성을 갖는 시각적 요소의 적용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Kweon, & Kim, 2018; Kang & Hwang, 2015). 따라서 심미성은 단순히 예술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공간의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다.

#### (3) 편리성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에서는 편리한 공간 접근 및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Kim & Kim(2015)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함께 주차시설 계획 및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임산부 등의 교통 약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수유시설과 장애인 전용 출입구 등의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Kim & Kim, 2014). Kim & Hwang(2023)과 Kang & Hwang(2015)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고려 뿐만 아니라 공간에 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온라인 수단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 환경 및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

고 공간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공공공간으로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 (4) 문화성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기초한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공간 조성이 요구된다(Kim & Hwang, 2023).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 사이, 시민들 상호 간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활동을 지원(Kwon & Choi, 2013)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외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Kim, Kweon, & Kim(2018)은 기존의 공간이 지닌 역사나 시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이미지, 스토리텔링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할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역사회의 연결성 강화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 2.4.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어메니티 특성 분석

본 연구는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메니티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의 세부 내용을 추출하였고 다음 <표 2>와 같이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표 2>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어메니티 특성 분석 틀

특성	세부 내용	선행연구*
환경성	A-1 기존의 공간만이 갖는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는 재생이 이루어져 있는가?	A,C
	A-2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간의 문화예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A,B,E,F
	A-3 기존의 재료를 재활용 하거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B,D,E,F
	A-4 자연적 요소가 포함된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야외문화행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A,D,E,G
심미성	B-1 색채, 재료, 형태 등의 표현 방식이 친근한 디자인으로 나타나는가?	C,D
	B-2 공간의 용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외관 이미지를 반영하는가?	B,C,D,G
	B-3 기존 공간의 구조와 재생을 통해 형성된 구조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	C,E,F,G
	B-4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에는 시각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	C,E
편리성	C-1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B,E,F,G
	C-2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체계 및 충분한 주차시설을 마련하고 있는가?	A,B,D,E,G
	C-3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 약자, 어린 아이, 임산부 등을 위한 수유시설, 장애인 전용 출입구와 같은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가?	A,F,G
	C-4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A,D
문화성	D-1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 및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가?	A,B,D,G

문화성	D-2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소통 가능한 프로그램 또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가?	D,G
	D-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및 시대적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A,D
	D-4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외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가?	C,G

\*A : Kim & Hwang (2023), B : Lee & Yoon (2020), C : Kim, Kweon, & Kim (2018), D : Kang & Hwang (2015), E : Kim & Kim (2015), F : Kim & Kim (2014), G : Kwon & Choi (2013)

### 3. 사례분석

#### 3.1. 사례 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컬처노믹스 정책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재생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된 총 16개 문화예술공간 중 도시재생 공간으로 재개관한 공간 7곳을 범위로 선정하였다. 사례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3>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사례 개요

사례	사례명	과거 용도	설립 연도	재개관 연도
A	서울연극센터	(구) 해화동사무소	1965년	2023년
B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구) 동송아트센터	1989년	2021년
C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구) 김포가압장	1979년	2016년
D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구) 구의취수장	1941년	2015년
E	서교예술실험센터	(구) 서교동 사무소	1989년	2009년
F	신당창작아케이드	(구) 서울 중앙시장 지하 쇼퍼센터	1965년	2009년
G	금천예술공장	(구) 인쇄공장	1975년	2009년

#### 3.2.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사례분석

##### (1) 사례 A :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는 해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2023년에 재개관되었다. 연극 분야 창작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연극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학로를 찾는 시민 관객에게 공연장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학로 연극 전문 클러스티이다. 서울연극센터의 분석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사례 A 서울연극센터 분석

사례명	서울연극센터		
과거 용도	(구) 해화동사무소	연면적	942.61m <sup>2</sup>
설립 연도	1965년	재개관 연도	2023년
공간 구성	1F_라운지(공연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휴식공간) / 2F_공유 랩, 세미나실 / 3F_스튜디오 / 4F_운영 사무실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기존 해화동 사무소의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여 현재 서울연극센터를 조성하는 공간 재생이 이루어졌다.	
	A-2	공간 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3	기존 재료를 재활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A-4	건물 입구에 작은 화단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나, 야외문화행사의 진행이 가능한 면적 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B-1	통창으로 구성된 건물 외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조명, 하얀색으로 구성된 벽체, 공간에 따라 회색과 나무로 구성된 바닥, 무채색 가구 등 친근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나타났다.
	B-2	통창으로 구성된 외벽에 연극 대본의 일부가 프린팅 된 시트지를 부착하여 현재의 공간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임을 표현하고 있다.
	B-3	재생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B-4	1층 라운지 한쪽 벽면에 대학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팸플렛들이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편리성	C-1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단에 난수립을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내사인을 설치하였다. 또한, 각 층마다 비상안내도를 통해 비상시에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C-2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나, 별도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자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C-3	공간 안내사인 뿐만 아니라 주출입구 옆에 전통휠체어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고 각 층의 복도마다 간이 벤치가 있어 이동 중 휴식을 제공한다.
	C-4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어 공연, 워크숍, 교육 정보 등 각종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문화성	D-1	1층 라운지와 3층 스튜디오 공간에서 강연, 교육, 소규모 공연의 진행이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D-2	예술인과 직간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강연이나 교육, 공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D-3	기존 공간에 관한 역사 및 시대적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D-4	1층 라운지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연극, 세미나, 강의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또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3층 스튜디오는 공연 및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		서울연극센터는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공간의 구조만을 보존 및 활용하였고 녹지공간의 조성이 부족하여 환경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연극센터와 1분 거리에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편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 (2) 사례 B :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서울예술인 지원센터는 동송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에 재개관된 문화예술공간이다.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률 컨설팅, 심리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술지원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인을 연결 및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서울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 플랫폼이다. 서울예술인 지원센터의 분석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사례 B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분석


사례명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과거 용도	(구) 동송아트센터	연면적	1,871m <sup>2</sup>
설립 연도	1989년	재개관 연도	2021년
공간 구성	B1F, B2F_극장 / 1F_로비, 카페 / 2F_아고라룸, 미팅룸 / 3F, 4F_예술인 지원센터, 사무실 / 5F_프로젝트룸 / 6F_옥상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과거 극장과 문화예술공간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였다.	
	A-2	서울 속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 및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형성한다.	
	A-3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연결되는 기존의 계단 난간을 재사용하였다.	
	A-4	건물 입구 야외 쉼터는 큰 나무와 화단으로 조성하여 휴식 및 야외문화행사 제공하며, 1층 카페, 각 층의 발코니, 옥상은 화분과 조경을 조성해 휴식공간의 기능을 제공한다.	
심미성	B-1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실내조명이 잘 어우러지며 화이트와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바닥과 벽체, 베이지 톤의 편안한 색감의 가구를 사용해 친근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B-2	건물 입구의 외벽에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나 진행 예정인 행사에 관한 플랜카드와 현수막이 제작되어 있어 극장과 예술공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심미성	B-3	과거 지하 1, 2층의 극장은 일반적인 액자형 무대를 객석과 무대가 고정되지 않고 공연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개선했었다.
	B-4	1층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예술인 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동 테이블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팸플릿과 책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공간 및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정보가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C-1	넓은 로비, 안내사인, 벽체와 가구의 색상 차이, 계단에 눈썹립 설치 등과 같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각 층마다 피난 안내도가 배치되어 있어 비상 상황 시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C-2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나, 별도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자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C-3	건물 외부에 완만한 경사로와 난간의 설치 및 내부의 엘리베이터가 입구와 가까이 위치해 이동 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나, 엘리베이터 크기가 협소해 많은 인원의 방문객과 휠체어 및 유아차의 동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C-4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예약, 대관 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강좌와 작가 인터뷰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문화성	D-1	지하 1층과 2층에 극장이 있고 1층 로비, 5층 프로젝트 룸은 소규모 공연과 기획전시, 아트마켓 등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지원 및 제공한다.
	D-2	강연이나 작가와의 만남과 같이 시민과 예술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시회, 소규모 공연 등을 통해 간접적인 소통 또한 가능하다.
	D-3	기존 공간에 관한 역사 및 시대적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D-4	1층 야외스퀘어, 로비, 카페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2층 상담실 또한 상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은 공연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2층 미팅룸, 아고라룸, 5층 프로젝트룸은 대관 예약을 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		서울예술인 지원센터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접근 및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편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나 조명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 이전의 공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 (3) 사례 C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6년에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공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예술 놀이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서울 서남권 및 전역의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분석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사례 C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분석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사례명	(구) 김포가압장		
과거 용도	연면적	1,190m <sup>2</sup>	
설립 연도	1979년	재개관 연도	2016년
공간 구성	B1F_로비, 프로그램 공간, 스튜디오 B & C, 미디어랩실, 예술교육자료 열람공간, 외부수조 1F_로비, 운영사무실, 전시공간, 스튜디오 A, 예술놀이랩실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기존 김포가압장의 수조, 통로, 경사진 슬로프, 건물 골조 등의 내·외부 구조가 보존 및 활용되어 현재의 공간을 조성하였다.	
	A-2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예술 프로그램과 관련된 워크숍과 축제 등의 개최를 통해 서울 남부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3	건물 내부의 깨진 타일과 부식된 콘크리트 등이 유지되었으며, 외부의 벽면과 수조 또한 재활용 된 재료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내부의 커뮤니티 공간은 목조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어 친환경적인 재료가 사용 되었으나, 그 외에 공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A-4	인근에 조성된 녹지공간이 서서울호수공원과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여 “소리정원, 모여라 메아리” 등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각 오브제를 활용해 소리 퍼포먼스로 연결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심미성	B-1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예술교육자료 열람실과 휴식공간에 Blue, Yellow 계열의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내부 디자인은 원목을 사용함으로써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B-2	외부 수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장난감 모형 배치, 땅따먹기와 오징어놀이 같은 전통 민속놀이가 가능한 외부 환경 등을 조성하였다.
	B-3	김포 가압장으로 사용되었던 기존 외부 수조의 상징적 구조를 보존 및 활용 할 뿐만 아니라 그래피티 벽화, 거울 필름지 등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B-4	내부 공간 안내 배치도를 지하 1층과 1층 출입구에 배치하였고 프로그램에 관한 전시 및 홍보 요소의 팸플릿 등이 내·외부 공간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편리성	C-1	보행자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정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외부 수조와 건물의 지하 및 지상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바닥에 점자 보도블록과 공간 방향 안내 표시가 배치되어 있다.
	C-2	공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까치산역)은 도보로 약 27분 정도 소요되지만,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또한, 공간 좌측에 공연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방문 시 이용이 가능하다.
	C-3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와 함께 바닥에 점자보도블록, 벽면에는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 1층에 수유실이 배치하였고 장애인 화장실을 각 층별로 배치하였다.
	C-4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매월 공간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의 예약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성	D-1	지하 1층의 로비 공간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외부 수조와 녹지공간이 연계되어 지역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D-2	공간 내·외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하고 있고 주로 가족 단위로 참여가 가능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에 로비와 1층 외부 수조 공간을 통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D-3	정문 앞 뿔말에 과거와 현재의 공간에 대한 설명과 변화 과정 및 각 층별 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공간에 관한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반영하였다.
	D-4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상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종합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김포가압장의 재생을 통해 예술교육 전용의 공간을 조성하였다. 기존 공간의 내·외부 구조를 보존한 채 커뮤니티 공간과 전시공간 등을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로비 공간을 통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다. 또한, 녹지공간을 활용해 자연환경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방문객의 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 (4) 사례 D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5년에 재개관한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서커스 창작기지이다. 거리예술과 공공공간을 무대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교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거리예술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분석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사례D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분석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례명	(구) 구의취수장		
과거 용도	연면적	1,027m <sup>2</sup>	
설립 연도	1941년	재개관 연도	2015년
공간 구성	제1수취장 : B1F_창작공간 / 1F_관리사무소, 휴식공간 레지던스 : 1F_워크숍룸, 공용주방, 운영사무소, 휴식공간 / 2F_아티스트 스튜디오 / 3F_옥상 테라스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과거 취수장의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여 현재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로 재생이 이루어졌다.	
	A-2	이동형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거리로 직접 나가 거리예술을 홍보함으로써 해당 공간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성	A-3	공간 내부 및 외부에서 친환경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A-4	인근에 녹지공간을 구성하고 곳곳에 벤치를 배치하여 휴식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여 야외문화행사가 가능한 야외마당을 구성하였다.
심미성	B-1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야외 조명과 같이 밝은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내부 구조는 콘크리트와 금속 지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B-2	아뜰리에와 제1취수장의 외벽에 다양한 페인팅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임을 표현하고 있고 넓은 야외 마당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B-3	과거 취수장에서 사용되었던 펌프를 마당에 전시하였고 지하로 계속적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존 공간의 구조적 특징을 거리예술작품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새로운 공간 구조와 조화를 이룬다.
	B-4	제1취수장 내 휴식공간 입구에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편리성	C-1	각 공간의 위치와 방향에 관한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되어 있지 않다.
	C-2	센터 내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 이용은 편리하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약 15분, 지하철역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C-3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었으나, 일부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마설치되어 이동 약자들의 공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C-4	서울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예술 창작 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축제 정보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성	D-1	제1취수장, 제2취수장, 야외 마당, 서커스 천막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과 야외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다수의 인원의 수용이 가능하고 넓은 대지로 인해 지역 문화 및 행사의 수요 또한 충족시킨다.
	D-2	주로 거리예술 창작과 훈련 장소로 활용되어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지만, 실내 휴게실을 교실로 리모델링 해 오픈 형태의 다양한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과 예술가의 소통이 가능하다.
	D-3	과거 취수장에서 사용했던 펌프들을 야외마당에 전시함으로써 이전 공간의 용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제1취수장의 주출입구에는 구의취수장부터 현재 거리예술창작센터가 되기까지의 연혁의 내용을 나타낸다.
	D-4	시민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나 내부 공간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 대관이 가능하고 그 외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종합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주로 야외마당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반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출입 및 관람은 가능하나, 대관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사용이 가능해 전체 특성의 반영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넓은 대지로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하다.

#### (5) 사례 E :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09년에 재개관하여 홍익대학교 인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익대 앞에 예술생태계 및 교류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술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더 자유롭고 안전한 창작공간 조성을 노력하는 예술가를 위한 전시 교류 공간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의 분석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사례 E 서교예술실험센터 분석

사례명	서교예술실험센터		
과거 용도	(구) 서교동사무소	연면적	551m <sup>2</sup>
설립 연도	1989년	재개관 연도	2009년
공간 구성	B1F_커뮤니티 공간(강연, 공연) / 1F_갤러리, 북카페 / 2F_운영사무소, 세미나실 / 3F_옥상정원(공방 프로그램 운영)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건물의 외부 구조와 형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및 활용하여 재생을 통해 각 내부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게 리모델링하였다.	
	A-2	문화예술적 특성을 갖는 홍대 지역의 정체성에 기초해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용도가 조화롭게 조성하였다.	

환경성	A-3	천장과 바닥은 기존의 마감을 그대로 보존·활용하였고 계단 난간도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재료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4	건물 야외공간과 1층과 2층 내부에 식물을 배치하였고 옥상정원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면적 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B-1	전시공간은 화이트 톤의 공간과 밝은 조명, 노출 콘크리트 천장을 이루고 있으나, 전시 공간을 제외한 공간들은 자연스러운 색감의 조명 사용, 우드 톤의 바닥 마감, 목재 가구 등을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B-2	주출입구에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나팔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예술공간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외관에 상징적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3	재생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B-4	건물 입구에 문화예술에 관한 팸플릿과 잡지를 배치하였고 입구와 연결된 1층 카페에 문화예술 관련 서적을 비치해 자유로운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편리성	C-1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단에 손잡이 설치, 계단 난간 모서리에 충돌 방지 패드 등을 부착하고 각 층마다 비상 안내도와 대피·구조시설의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 면적에 비해 계단 구성이 부족하여 비상 시 이동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C-2	도보 5분 거리에 인근 버스 정류장 3곳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홍대입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자차를 이용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C-3	점자 안내판과 점자유도블록 설치 뿐만 아니라 청문 우측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내부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미설치하여 이동 약자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C-4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서교예술실험센터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운영시간, 기획사업,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성	D-1	지상 2층 내 운영사무실을 제외한 각 층에 강연, 공연을 위한 다목적 공간, 전시 공간, 공방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옥상정원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D-2	워크숍, 강연, 쇼케이스 및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 간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D-3	재생 이전의 기존 공간에 관한 역사 및 시대적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간과 연관된 '서교로'와 '서교레코즈'에 관한 상징적 이미지와 설명이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D-4	지상 1층 전시공간, 예술다방, 서교레코즈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지하 1층 다목적실과 지상 3층의 옥상정원은 행사나 진행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종합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자연스러운 색상의 조명과 목재 가구 등을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존 구조와 새롭게 형성된 구조와의 조화를 이뤄 심미성이 높다. 그러나 넓은 내부공간에 비해 계단의 크기나 수가 부족하여 안전성이 떨어지고 이동 약자의 이동을 고려한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편리성의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사례 F :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서울중앙시장 지하에공예 및 디자인에 특화된 레지던시 공간으로 2009년에 재개관하였다. 이 공간은 입주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장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대문과 을지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창작권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교류와 작업을 촉진한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분석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사례 F 신당창작아케이드 분석

사례명	신당창작아케이드		
과거 용도	(구) 서울 중앙시장 지하 쇼핑센터	연면적	1,389m <sup>2</sup>
설립 연도	1965년	재개관 연도	2009년
공간 구성	총 35개의 작업실, 공동작업장, 아트마켓, 커뮤니티 룸, 사진실 등의 입주 작가 활동 공간 구성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기존 지하 쇼핑센터 기본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였고 일부 상점들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휴식공간을 포함한 몇몇 구역은 기존 상점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A-2	신당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창작공간을 통해 예술인과 상인의 활동을 제공하고 시민들 또한 시장 내에 문화예술적 요소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A-3	기존 지하 쇼핑센터 복도 공간의 구조적, 재료적 측면을 보존 및 활용한 채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만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친환경 재료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A-4	별도의 녹지공간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심미성	B-1	기둥과 벽면에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고래 페인팅을 표현하였고 전시실과 사무실에 네온사인, 아크릴 간판을 설치하여 공간 분위기를 밝고 개성있게 조성하였다. 또한, 공간 외부에 다양한 시각적 요소 등을 통해 공간의 주목성을 강화하였다.
	B-2	공간 외부에서는 입구에 설치되는 간판 이외에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요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3	신당창작아케이드로 내려가는 계단에 배치된 안내 간판, 표지판, 신당 창작 아케이드와 시장 내부의 통합 안내 배치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벽면에 적용된 페인트 디자인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시장 공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B-4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나 작가 소개가 각 공간에 소개하고 있어 작품에 대한 홍보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공간 또는 전시 등에 관한 시각적 요소(포스터)가 기둥과 벽면에 곳곳에 부착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성	C-1	시장 내부에서는 차량 통행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오토바이만이 이동할 수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로의 접근은 시장 내 위치한 여러 입구를 통해 가능하며, 지하에 있어 보행자 전용으로 운영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된다.
	C-2	신당창작아케이드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은 총 9개로, 시장 내부로 들어와 지하로 이어지는 공간은 일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인근에 다수의 공공 주차시설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다.
	C-3	공간의 끝부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와 지상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있고, 벽면에 있는 공간 설명도에는 안내를 위한 점자가 부착하여 모든 이용객이 공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4	각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작업 및 활동을 공유하고, 신당창작아케이드 자체의 SNS를 통해서도 전반적인 작품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식 및 정보는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성	D-1	공간은 전시 공간, 커뮤니티 룸, 사진실, 휴식 공간, 공용공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룸에서는 작가들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술작품의 배움과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용자와 작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D-2	입주 작가들의 SNS를 통해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설전시 뿐만 아니라 특별 기획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성	D-3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관한 정보들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D-4	예술가들에게 활용된 개인 작업 공간을 제외하고, 공간 내에 있는 커뮤니티 룸, 전시 공간, 그리고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어, 시민을 포함한 방문객들 모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		신당창작아케이드는 녹지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지하 쇼핑센터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예술가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 활동을 공유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기초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 (7) 사례 G :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은 독산동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에 재개관된 문화예술공간이다. 시각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예술 실험을 장려하고 예술가들이 24시간 사용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픈 스튜디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예술가의 접점을 형성해나가는 시각예술 전문 국제 창작 레지던시이다. 금천예술공장을 분석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사례 G 금천예술공장 분석

사례명		금천예술공장		
과거 용도	(구) 인쇄공장	전체면적	2,358 m <sup>2</sup>	
설립 연도	1975년	재개관 연도	2009년	
공간 구성	B1F_예술가를 위한 워크숍룸, 미디어룸 / 1F, 2F_작가를 위한 개인 스튜디오, 공용주방, 회의실, 샤워실, 샤워실 / 3F_대형 전시공간 / 외부 컨테이너 창고동, 창작 및 교육의 기능			
이미지				
특성	세부 내용			
환경성	A-1	기존 공간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 및 활용하는 재생을 통해 현재의 건물과 외부 컨테이너 창고동을 조성하였다.		
	A-2	예술가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작품, 기획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과 연계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금천구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A-3	내부에 별도의 친환경적인 재료는 찾아볼 수 없다.		
	A-4	기존의 야외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 주위에 벤치와 화단 등을 함께 조성함에 따라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심미성	B-1	휴게실은 1인용 빈백 소파 등을 배치하여 편하게 쉴 수 있으며 따뜻한 색감의 실내조명과 목재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친근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B-2	건물 외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관한 플랜카드 설치와 함께 컨테이너 창고동 건물 위에 거대한 철제 로봇형상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술공장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B-3	기존 컨테이너 창고동의 출입구에 Yellow, Red 계열의 밝은 색채를 통한 철제 구조물이 설치하여 기존 공장 건물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내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B-4	건물 입구에 팸플렛과 책자 및 잡지들이 배치되어 있어 행사나 프로그램에 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스튜디오 문에 해당 작가가 진행한 개인 전시와 관련된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편리성	C-1	건물 진입로에 내부 공간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인지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하였다. 다른 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층계 공간이 복도 양 끝, 가운데에 위치해 비상시에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C-2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1분 거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자차를 이용한 접근 또한 용이하다.		
	C-3	건물에 진입하는 곳에 완만한 경사로와 난간이 배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계단에는 난간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였다.		
	C-4	서울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간 예약이 가능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성	D-1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3층에 대강당, 야외 앞마당, 컨테이너 창고동을 조성하였다.		
	D-2	예술인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기간에 시민들의 방문이 가능해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스튜디오를 오픈하지 않는 기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다.		
문화성	D-3	기존 공간에 관한 역사 및 시대적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D-4	건물 내부는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외부 창고동과 앞마당에서는 진행되는 행사 및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종합	금천예술공장은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전용 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내부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비상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잘 나타났다. 대형 전시장과 외부 창고동을 제외한 다른 공간들은 예술인 전용 공간으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만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성이 낮게 나타났다.			

### 3.3. 소결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환경성 분석 결과, 건물의 리모델링은 외부적인 형태와 특징에 대한 변경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재활용 및 친환경 재료의 사용이 미흡하였다. 건물 외부의 일부에서는 식물 배치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였다. 내부에서는 주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였지만, 특히 사례 A, F, G에서 친환경

시설 부재와 녹지공간의 조성이 미흡하였다.

심미성 분석 결과, 큰 창으로 유입되는 자연조명과 실내조명의 조화, 창을 통해 유입되는 주변 조경과의 조화를 통해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사례 C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였고 사례 E, F에서는 목재가구를 활용한 공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의 시각적 효과가 친근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 D에서는 콘크리트와 금속 지지대로 따뜻한 느낌이 부족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사례들은 안전성과 교통 편의성을 강조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계단, 엘리베이터, 미끄럼방지 시설은 내외부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안전성을 강조하며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례 B, D, E에서는 작은 엘리베이터 크기로 인해 이동 약자에게 사용상 어려움이 있으며, 사례 D는 외부 환경에서의 차도와 인도의 명확한 구분 부재로 인해 일부 위험성이 나타났다. 정보와 시설의 접근성은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예술 공간의 정보와 행사 소식이 전달되어 시민과 예술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화성 분석 결과, 내부 공간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운지, 세미나실, 스튜디오, 지하 1층 및 2층, 로비, 프로젝트 룸 등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 활동을 위해 활용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과 예술가 간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스토리텔링 요소 부재와 대부분의 공간이 대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환경성, 심미성, 편리성, 문화성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 종합 분석

구분	사례	종합 분석
환경성	A	리모델링은 주로 외부의 일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과 녹지공간의 구성은 미흡함.
	B	과거 극장과 문화예술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지원하여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 녹지공간과 휴식 공간은 화분과 조경으로 조성되어 일부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음
	C	외부의 김포가압장 수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며, 내부의 친환경적인 재료가 사용된 목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 녹지 공원과 연결되어 건물 주변의 이동을 자유롭게 제공함.
	D	외관은 벽돌, 콘크리트, 철근 등 자연과 분리된 재료를 사용하여 마당 및 주변 환경과 조화는 부족함. 주변에 녹지공간과 벤치가 배치되어 휴식과 야외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E	외부와 내부는 보존·재생함. 야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과 녹지공간은 일부 조성되었으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함.
	F	일부 상업공간이 예술 공간으로 변화하여 상업과 문화예술이 통합 및 연속된 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짐. 그러나 친환경적 재료나 녹지공간의 조성은 부족함.
	G	건물과 외부 컨테이너 창고동은 기존 구조를 보존 및 활용하여 재생됨.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화예술작품과 전시가 운영되며 야외 마당은 벤치와 화단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

심미성	A	내부는 나무로 구성된 바닥, 무채색 가구들이 친근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나타남. 건물 외벽 통창에는 연극 대본 일부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강조하며, 1층 라운지 벽면에는 대화로 공연과 프로그램에 관한 팸플릿이 배치됨.
	B	큰 창과 실내 조명의 어우러짐이 친근한 색감과 기존 건물과의 일관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나타남.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편안한 공간이 조성됨.
	C	내부는 밝은 색채와 원목의 사용과 외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놀이와 장난감 시설 배치 등으로 친근한 디자인이 배치됨. 기존 구조물은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존되었으며 안내 배치도와 전시 요소의 정보를 제공함.
	D	밝은 색상의 조명과 과거 취수장의 조형물이 전시하였으며, 아틀리에와 취수장 외벽에 페인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임을 강조함. 건물 내부의 바닥 매트와 페인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휴게공간 입구에는 안내 책자가 배치됨.
	E	자연스러운 색감의 조명과 목재가구를 사용하였으며 주차입구에는 입간판과 조형물이 배치됨. 하지만 외관에는 상징적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이 부족하며, 재생된 새로운 구조물은 미흡함.
	F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밝고 다채롭게 조성하고, 내부에서는 다양한 점포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질감 없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며 작품과 관련된 정보를 잘 전달하는 효과적인 홍보 요소들이 전시됨.
	G	입구에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요소가 배치되어 있고 휴게실 및 공용공간은 1인용 빈백 소파와 목재가구를 통해 친근한 디자인을 제공함. 외부 컨테이너 창고동은 밝은 색채 사용과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예술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함.
편리성	A	공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는 효율적이며 미끄럼방지 및 비상 시설이 갖춰져 안전성이 강조됨. 교통편이 다양하고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며, 입구와 복도에는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이용자 편의를 높임.
	B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간설계와 교통 편의성이 높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간 이용이 용이함. 넓은 공간의 로비와 시인성 좋은 안내사인, 논슬립 계단 설치로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엘리베이터 크기가 제한적임.
	C	엘리베이터와 점자보도블록, 안내 표시 등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갖춰짐. 대중교통과 센터 옆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됨.
	D	외부는 차도와 인도의 명확한 구분이 부족해 위험성이 있지만, 내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설치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함. 주차장은 주차 이용에 용이하나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일부 건물은 엘리베이터 부재로 이동 약자에게 제약이 있음.
	E	계단의 논슬립, 모서리 충돌방지 패드, 점자 안내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나 휠체어 이용시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이 제한됨.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차량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F	시장 내부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다수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와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이동 약자의 보행환경이 안전함. 작가들은 개인 SNS 및 센터 SNS를 통해 작업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G	7자 구조의 내부는 효율적인 엘리베이터 및 층계 구성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교통수단과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짐. 웹사이트, SNS를 통해 정보 전달 용이함.
문화성	A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라운지와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의 내부 공간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인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함. 그러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간에 따른 스토리텔링 요소 부재와 일부 공간 이용 제한됨.
	B	지하 1층과 2층, 로비, 프로젝트 룸은 다양한 예술 행사 및 소규모 공연과 전시를 위해 활용되며 일부 공간은 대관을 통해 예약이 가능함. 강연 및 작가와의 소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공간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요소는 미흡함.
	C	매월 다양한 내·외부 외부수조와 녹지공간이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상시 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등을 갖추어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함. 공간의 스토리텔링 요소는 청문 앞에 정보가 제공됨.
	D	내·외부 공간을 통해 문화행사와 수업이 진행되어 방문객과 예술가 간의 소통이 가능함. 공간 관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부 공간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필요함.
	E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위해 각 층에 강연, 공연, 전시, 공방 등을 마련됨.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역사나 변화를 담은 스토리텔링 요소는 부족함.
	F	커뮤니티 룸을 중심으로 작가들 간 교류 활동과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또한 전시 공간에서는 상설 전시와 특별 기획전시가 운영됨.
	G	예술인 전용 스튜디오는 개방 기간에만 방문 가능하며 폐쇄기간에는 야외 앞마당, 외부 컨테이너 창고동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교류가 가능함. 과거의 역사나 변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적 요소는 부족함.



## 4. 결론

본 연구는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된 총 7곳의 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어메니티 특성으로 환경성, 심미성, 편리성, 문화성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분석 결과 어메니티 특성 중에서 심미성이 가장 잘 나타났다. 심미성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조화와 편안함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예술 공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증진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친근한 공간 이미지의 부족과 주변 경관과 조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표현적 특성을 활용하여 재생된 공간과 기존 공간이 통합된 이미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시각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참여성과 시각적 활용성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메니티 특성 중에서 환경성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간의 외부 구조는 보존되었지만 내부에서는 기존의 공간 흔적을 찾기 어렵고 친환경 재료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와 내부 디자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외부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재료와 녹지공간 조성을 강조하여 도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가 필요하다. 건물 내부의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재료와 조경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통해 건물은 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편리성에서는 외부 환경에서 도보 시설의 명확한 구분 부재와 일부 사례에서는 내·외부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건물의 외부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 시설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동 약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성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간의 융통적 기능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문화 활동 지원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로비공간과 복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공간대여를 위한 예약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의 공간구성과 어메니티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례수를 확대하여 국내·외

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공간 구성과 어메니티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용자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메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을 발전시킨다면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공간을 협력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고부가가치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Jung, J. E. (2021). A Study of Operation Activ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Space as Cultural Urban Regeneration : focusing on the Incheon Art Platform case analysis *Culture Industry Research*, 21 (3): 161-169.
2. Kang, M. N., & Hwang, Y. S.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public space design for the activation of urban amenities: Focusing on case studies by public space type. *Basic Design Research*, 16(4), 1-16.
3. Kim, K. S., & Kim, M. S. (2015). City amenities promo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idle space: focusing on the overpass lower space. *Research in Digital Design*, 15(3), 871-880.
4. Kim, M. S., & Kim, K. S. (2014). A Study on the Unused Space by Utilization Case for City Amen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and Culture*, 20(1), 131-143.
5. Kim, M. Y., & Moon, J. M. (2010). Analysis of the street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 papers*, 19(6), 161-168.
6. Kim, S. H., Kweon, Y. J., & Kim, J. Y.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space design in Seoul subway s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d artistic ame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ace Design*, 13(6), 53-65.
7. Kim, Y. J., & Hwang, Y. S. (2023). A case study of urban regeneration complex cultural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ame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 25(1), 84-87.
8. Kwon, M. J., & Choi, J. A. (2013). A study on the spatial design characteristics of overseas museum spaces for enhancing urban amenities. *Journal of Digital Design*, 13(4), 333-342.
9. Lee, Y. N., & Yoon, G. G. (2020).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urban amenities through the utilization of underutilized spaces beneath overpasses. *Basic Design Research*, 21(1), 419-430.
10. Noh, Y. K., Shen, Y. Q., Kim, H. J., & Hwang, Y. S. (2016). A Study on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Design in Culture and Arts Space Us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Thesis collection for the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Interior Design*, 2016 (10), 160-163.

[논문접수 : 2024. 02. 15]

[1차 심사 : 2024. 03. 20]

[2차 심사 : 2024. 04. 22]

[게재확정 : 2024. 04. 22]